

# 1500년을 살아낸 가야의 소리 - 탄금대교(彈琴大橋) -

이영천 | 작가

우리 감성을 일깨워 주는 매개 중 하나가 소리다. 진동이 만들어낸 파동으로 높고 낮음(음계)과 길고 짧음(음조), 맑음과 탁함(음색), 진폭의 크고 작음(세기)이 어우러져 소리가 된다. 이 파동이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퍼져나간다.

우리는 늘 소리를 듣고 있다. 이는 살아있음의 다른 표현으로, 소리를 내는 모든 존재에 깃든 속 깊은 이야기와 만나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떤 소리에 귀를 쫓긋 세우는 것일까? 음악처럼 익숙하고 친근한 소리다. 흐르는 물이나 새소리처럼 자연이 전해주는 소리에선 또한 평온함을 느낀다. 소리를 자연의 순리대로 배열하면 음악이 된다.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든 존재, 그 자체가 곧 음악이 되는 것이다.

충주 탄금대(彈琴臺)엔 가야의 소리를 형상화한 멋진 3경간 아치 탄금대교(彈琴大橋)가 있다. 넘실거리는 남한강 물결을 닮은 유려한 아치가, 1500년 전 스러져간 구슬픈 가야의 소리로 넘실거리고 있다.



충주 탄금대 앞 남한강을 건너는 3경간 아치 탄금대교. 뒤로 보이는 다리가 우륵대교. ©이영천

## 무너져 내리는 가야

중앙집권적 고대국가 성립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문명이 변천하는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 쇠는 국력을 가능하게 하는 잣대였고, 이를 통한 무기 발달은 영토 확장의 바탕이었다. 한반도에는 고조선과 부여, 옥저와 동예, 삼한이 청동기를 받아들인다. 이들이 멸망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병립하며, 철기 문명의 도입과 함께 영토를 뺏고 빼앗기는 시대를 맞는다. 초기엔 가야 철기가 가장 발달했노라 유물과 역사는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여섯 나라 12 부족 연맹체로 운영되던 가야는, 통일된 중앙집권 국가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륵이 살던 당시는 야만의 시대였다. 가야는 쇠락하고 신라가 흥기하고 있었다. 신라는 가야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 중심에 가야 철로 만든 무기가 있었다. 무기는 가야 여섯 나라의 군사적 약점을 집요하게 추궁하며 발달해 간다. 과정에서 군사는 물론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는다. 12 부족은 연대하여 신라에 대항하지 못했고, 가야 고을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다. 와중에 가야의 철을 생산하는 대장장이는, 가야 쇠로 만든 무기를 신라와 밀거래한다.

왕이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을 함께 순장시켰다. 엄청난 양(量)의 쇠와 함께다. 왕의 무덤이 만들어지면 제사장은 최고의 악사를 불러 냈을 위로하고, 천기(天氣)의 흐름을 진정시킨다. 악사는 우륵이고, 죽은 자를 위로하는 건 그의 몫이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는 고을들을 지켜내지 못한 왕은, 우륵에게 가야 12 부족과 그 고을의 모든 소리를 금(琴)에 담아내라 명한다.

## 12 부족 소리와 우륵

우륵은 가야의 옛 금(琴)을 들고 무너져 내린 고을을 누비며 소리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소리는 이미 무너져 내린 고을과 함께 사라지고 없다. 무기로 변한 야만과 욕망으로써 쇠가 고을을 무너뜨리고 나면, 소리는 쇠가 짓밟고 간 길을 따라 흘렀다. 소리는 살아있는 것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왕이 무덤으로 들어갔고, 가야 왕자마저 신라로 도망쳐 버린다. 가야는 그렇게 무너져 내린다. 쇠를 만드는 기술자들도 점차 신라에 몸을 위탁한다. 12현의 금(琴)은 가야 12 부족의 소리다. 무너져 내린 냇을 위로하는 건 늘 그의 몫이었기에, 우륵은 혼신 노력을 다해 소리를 담아낸다. 그러나 금(琴)을 만든 우륵도, 그것을 들고 부득이 신라로 가야만 했다. 제자 니문(尼文)과 함께였다.



탄금대 정상에 탄금정. 우륵이 가야금으로 12 부족 소리를 이곳에서 연주했다고 전해짐. ©문화재청

한강 유역으로 영토를 확장한 진흥왕은 직접 우륵을 불러 12현 금(琴)의 소리를 듣는다. 정복자의 권위와 위용, 승리를 금(琴)의 소리로 확인하고 싶어서다. 우륵은 12현 금(琴)은 다 무너져 내려 사라져 버린, 가야 12 부족의 소리임을 확인시킨다. 그 소리에는 어떤 회한이나 노여움도 없다. 사라져 갔으나, 신라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가야의 백성이 내는 '침묵의 소리'였다.

진흥왕은 우륵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며, 젊은 신라 악공들 하여금 가야의 금(琴)을 익히게 한다. 여러 물줄기가 남한강으로 모여드는 충주 '탄금대(彈琴臺)'에서다. 이렇게 12 부족의 소리를 담은 가야의 금(琴)은, 신라에서 침묵으로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마치 신라로 투항하여 진골 품계를 이어간 김유신 집안처럼 말이다.



대교가 들어서기 전 탄금대와 남한강 풍경. ©문화재청

### 1500년의 소리

가야금은 나무 판에 공명통을 두고, 그 위에 줄받침 기러기발 12개를 얹는다. 12 부족의 현시(顯示)다.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소리의 높고 낮음(음계)에 맞춰 순서대로 배열한다. 오른손으로 줄을 튕겨 소리의 맑거나 탁함(음색)을 조절하고, 왼손으로는 줄받침 안쪽의 줄을 누르거나 들어 올려 소리의 길고 짧음(음조)과 진폭의 크고 작음(세기)을 어루만지면서 연주하는 악기다.

튕기는 오른손에서 나는 소리는 스러져간 가야 고을이 품었던 자연의 소리다. 왼손이 조절하는 소리는, 각 고을에서 살았던 가야 백성과 축생의 소리다. 멸망한 나라를 기억하며 신라인으로 살아야만 했던 속 깊은 울음이다. 가야의 금(琴)이다. 12 부족이 살던 자연의 소리와 백성은 물론 축생의 생멸까지 한 악기 울림통에 온전히 넣어두고, 소리가 그리울 때마다 튕기고 조여서 꺼내 듣는다.

1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소리를 통해 야만의 시대에 생멸해간 가야인을 만나는 것이다. 1500년 전 사라져 버린 가야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있노라 노래하는 셈이다. 살아있는 가야의 소리를 간직한 금(琴)이다. 그들의 노래다.



기러기발 12개를 얹어 우륵이 만든 가야금. 기러기발은 가야 12 부족의 상징이다. ©문화재청



가야금 산조 공연. 우륵이 12 부족 상징으로 12곡을 담았으나, 신라 악공이 5곡으로 줄였다. ©문화재청


우륵이 야만의 시대를 살다간 가야인의 소리를 모으고 간직한 곳이 탄금대다. 이곳에서 진흥왕의 명령으로 신라 악사들을 가르친다. 신라 악사들은 망한 가야의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멸시했다. 12 부족을 상징하던 12곡을 임의로 5곡으로 줄여버린다. 가야의 곡이 음란하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우륵은 개의치 않았다.

### 가야의 소리로 넘실거리는 아치, 탄금대교

충주시 칠금동과 중앙탑면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다. 우륵이 가야금을 탔다는 탄금대 인근이다. 그래서 다리도 탄금대교란 이름을 얻었다. 탄금대교와 엇갈린 곳에선 엑스트라-도즈드교인 우륵대교가 역시 우아한 자태로 지나고 있다. 탄금대교는 3경간 중로식 날선로제 아치다. 74m - 125m - 74m 규모의 아치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폭 21m, 580m 길이다.

3경간을 구성하는 아치 틀(Rib)을 곡면으로 연속해 연결하고, 곡면 하단에 교각을 세워 거처했다. 아치 틀의 맨 밑바닥에서 약간 띄워 올려 보강형을 거치시켜 중로(中路) 아치가 되었다. 거드는 아치나 현수교 등에서 교량 전체 또는 상부 강성을 보충하기 위해 설치하는 강성이 강한 벤딩을 사용하였다.

3경간 아치가 질푸른 남한강 물결을 닮았다. 잔잔하게 일렁이는 물결이, 가야의 금(琴)이 내는 가락처럼 춤춘다. 질푸르다 못해 시퍼렇게 멍이 든 남한강이, 탄금대교 아치 모양으로 출렁인다. 이 물결이 침묵으로 신라를 맞이하여야만 했던 서글픈 가야 백성의 삶을 1500년간이나 꺼안아 주었던 모양이다. 아치 틀엔 밤을 밝히는 형형색색의 경관 조명을 달았다. 색을 달리하면서 수시로 얼굴을 바꾸는 불빛이 은은하면서도 변화무쌍하다. 강물에 비친 탄금대교 모습이, 우륵이 타는 구슬프게 퍼져나가는 가락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물에 비친 불빛이 스러져간 가야 고을과 백성, 축생의 울음처럼 흔들거린다. 1500년을 살아낸 속 깊은 소리를 퍼렇게 멍든 물 위에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유려한 탄금대교 아치가 이 모두를 위로하는 '진혼(鎮魂) 무(舞)'처럼 한들거린다. 



3경간 아치의 탄금대교. 가야금 소리와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 물결을 형상화하였다. ©이영천



우륵이 타는 구슬픈 가야금 소리가 연상되는 탄금대교 야경. ©충주시청